

도내 문화관광 홍보 유튜브 크리에이터 선발 '전북 찾은 컨셉러' 는 누구?

전북문화관광재단, 비대면
온라인 발대식 개최
78개 중 14개 팀 선정
도내 14개 시군 찾아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도내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78개 팀이 접수해 5:1 높은 경쟁률 속에 선발된 14개 팀의 크리에이터들이 2020년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선발됐다. 당초 6월 5일 예정됐던 발대식은 서울·경기 지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으로 지난 12일 진행했다. 크리에이터들은 약 5개월 간 전북 14개 시·군을 찾아 영상 콘텐츠를 제작,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사람이 몰리지 않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비대면 온라인 발대식.

은 곳', '숨겨진 여행지' 등 달라지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 전북도의 숨은 곳과 꼭 가고 싶은 곳 등을 발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북도의

문화·관광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관광팀(063-230-746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순창의 6월, 즐길거리 '풍성'

18일부터 중앙쉼터·체계산·강천산 등서 문화공연

순창군이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도심과 관광지 곳곳에서 문화공연을 펼친다. 오는 18일 새롭게 조성된 순창읍 중앙로 중앙쉼터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체계산, 강천산 등 주요 관광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직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실내공연은 제외하고 중앙쉼터, 체계산, 강천산 등 공연지역을 모두 야외로 선정해 진행한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는 18일 순창읍 중앙로 중앙쉼터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 열린다.

이번 공연에 지역 예술인 그룹인 페이지와 '순창이 좋다' 박한근이 함께하며, 지역 문화예술동호인 단체인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도 출연한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서고 싶어 도 설 수 없었던 이들에게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 관객과 출연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쉼터에서 공연이 열릴 예정이며, 관람료는 무료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했다.

중앙쉼터 말고도 순창군 주요 관광지인 강천산과 체계산에서도 공연이 열린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지난 3월 개통이후 주말이면 8~9천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낮 2시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 농특산물 직판장에 마련된 간이무대에서 버스킹 공연 형태로 진행된다.

공연은 성악부, 재즈,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아미추어 공연팀부터 모던재즈트리오, 가수 장우연 등 프

로 공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했다. 강천산 매표소 입구 간이무대에서도 20일과 27일, 저녁 7시 30분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강천산 야간개장을 구경하기 위한 나온 등산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 관람기회를 점차 회복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점차 공연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판소리 완창무대 '소리 관' 명창 6명 선정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판소리 완창무대 '소리 관'을 처음 기획해 공모한 명창 6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소리 관 공모에는 총 57명의 소리꾼이 접수해 9.5대 1의 경쟁률로 이중 흥부가 부문은 최고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춘향가 김주리(29), 심청가 박애리(44)/김나영(43), 흥부가 조수환(25), 수궁가 열경애(48), 적벽가 정윤형(25) 등이 선정된 주인공이다.

판소리 완창무대 '소리 관'은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주 2회 국립민속국악원 예음관에서 총 6회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심사의 심사위원에는 유수정(국립창극단 예술감독), 한민주(국악방송 본부장), 윤중



강(국악평론가), 유영대(前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고려대학교 교수), 강여주(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장)씨가 참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인의 삶과 문화' ... 돌레, '인문학콘서트 통담' 재개

국악인 오정해 진행

17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2019년을 뜨겁게 달군 '오정해의 농담'이 2020년 6월에 '인문학콘서트 농담'으로 새롭게 돌아온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단장 안수용, 이하 사업단)은 국악인 오정해가 진행하는 '인문학콘서트 농담'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인문학콘서트 농담'은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개최가 불가했으나 최근 정부의 대응 기조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인문학콘서트 농담'은 지난해의 '오정해의 농담'과는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오정해의 농담'이 방송인 오정해의 토크와 공연 문화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지역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호흡을 나눈다.

특히 사업단은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문화도시' 공모 사업의 진행 주체라는 성격에 맞춰 '인문학콘서트 농담'을 진행한다.

이는 정읍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자원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DNA를 끌어내어 정읍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에서 이뤄진다.

한편 '농담' 토크콘서트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돌레가 2018년부터 '사람으로 행복한 시민, 공감문화도시 정읍'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하고 있는 공연으로서 시간 신달자 시인, 가수 양희은·변진섭·홍지민·윤형주·김세환, 유현수 세프 등 가수·유명인과 함께 유진섭 시장, 김용현 조각가 등 지역의 정치·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어 정읍 지역에서 공연 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